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 참을 수 없는 복제의 욕망에 대하여

부족할 목적인 내용들이 예능의 입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개지고 복제되어서 '술도 많은' 교양과 지식으로 배달된다.

그리고 배달된 지식 패키지를 즐기며 웃다 보면 어느새 교양과 지식이 채워진다고 믿는다. 만나기 어려운 유명한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원본과 복제품의 차이는 일찌감치 무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한 복제라도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부족하다. '아우라'다.

아우라는 요즘에는 흔한 말이 되었지만 본래는 한 시대의 의미심장한 변화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보여 주는 개념이다. 아우라의 의미를 규정한 사람은 독일의 유대인 철학자 발터 벤야민(1892~1940)이다. 그는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글에서 아우라에 대해 예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별하고 고고한 '분위기'라고 말한다.

아우라는 '유일하고도 아주 먼 것이 아주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는 일회적인 현상'이다. 이런 뜻에서 아우라는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어떤 신비로운 것, 심지어는 성스러운 분위기를 뜻하는 것으로, 원본에만 있는 권위다. 원본은 이 아

우라로 인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 준다. 그것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아우라가 있기에 사람들은 원본에 끌리며 몰입하고 감동받는다. 하지만 복제 기술이 시작되면서 원본의 유일무이함을 보증하는 아우라가 무너진다. 벤야민에 따르면 '아우라의 붕괴'다. 아우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원본의 권위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희소성의 가치 또한 사라진다는 것이다. 가까이 다가가 수 없기에 숭배하는 마음까지 가졌던 것을 이제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 나쁜 일은 아니다. 그것도 애써지고 쉽고 편안하게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더 그렇다. 그럼에도 욕망 충족을 위한 복제의 대가가 원본 아우라의 붕괴라 해도 괜찮은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복제하는가? 복제하고 싶은 욕망 자체가 이미 원본이 품고 있는 아우라를 반증한다. 아우라에 대한 욕망과 선망이 없다면 복제 욕망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복제는 아우라를 가진 특별한 것, 귀하게 보이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며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드러

내는 자기 고백이기 때문이다.

원본의 아우라는 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수록 원본에 대한 욕망은 더욱 강해진다. 기술 발달 덕분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천지창조'나 '아테네 학당'과 같은 걸작들을 원본보다 좋은 화질로 볼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그럴수록 원본에 대한 갈망은 커진다. 그럼에도 복제하는 기술이 자기 실현과 교양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인식이 만연되고 있다. 읽는 책도, 여짜다 별다른 가는 여행지도, 보는 것도 먹는 것도 똑같다. 유명 인사가 갔던 여행지를 찾아서 가고 그들이 식사한 곳에서 같은 것을 먹으면서 가짜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를 경험한다고 믿는다. 복제가 비단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경우다.

경험과 의식과 정신의 복제야말로 가장 큰 문제이며 자기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리 스스로를 억압하고 타자화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낯선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명망자들이 배달하는 직업적인 복제품을 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 충장축제 구도심 활성화 시민 한마당으로

7080세대의 '추억과 낭만'을 자극하며 국내 대표적인 거리 문화 예술 축제로 발돋움한 광주 충장축제가 이번 주말에 개막한다. 15회째를 맞은 올해는 '추억, 세대 공감!'을 주제로 서커스 콘셉트를 처음으로 도입해 개막식을 비롯한 축제 전반에 접목하며 변화를 꾀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오는 5일(금요일)부터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충장로, 예술의 거리 등 구도심 일대에서 펼쳐지는 올해 축제의 세대 공감 소재는 서커스와 청바지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동춘서커스 초청 공연은 '태양의 서커스단'을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단순한 기예를 넘어 스토리텔링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 추억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 청춘의 상징인 청바지를 축제의 드레스 코드로 정착시키기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축제의 꽃인 '충장 퍼레이드'는 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수창초교에서 문화

전당 초입까지 1.6km에 걸쳐 서커스 퍼레이드, 마칭밴드, 치어리딩 등이 펼쳐진다. 충장로 4-5가에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춘 문화 존'이 들어선다. 70-80년대 거리를 재현한 '추억의 테마 거리'는 동부경찰서와 문화전당 사이 신서석로 일원에 꾸며진다. 구 시청 일대에서는 아시아 푸드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충장축제는 지난 2004년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문화 예술을 접목한 도시 재생을 이루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부터는 7080세대의 문화에 대중문화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8090세대의 문화를 더해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충장축제가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리 축제로 성장하려면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축제 기간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청바지를 차려입고 추억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 새 도로교통법 시행 혼란 적극적 홍보 절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새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으나 무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바뀐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많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사실을 모른 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택시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안전띠를 맨 경우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게 적발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며 동승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6만 원으로 오른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데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 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은 고임목 등의 무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사로 주차 안전조치는 지난해 10월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린이가 치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경사로에 주차할 때 앞바퀴를 꺾거나 고임목을 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다만 경찰은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택시만 타도 바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이 생활화 돼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택시운전자들도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띠를 매는 등 바뀐 도로교통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 상생과 협력의 시대로

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였던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유통 대기업이 슈퍼마켓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업 조정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물론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등이 상생 협력법상 사업 조정 제도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여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 등이 상생 협력법의 미비점을 그들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입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업 조정 제도가 그 취지를 관철하지 못하는 현실을 체감한 당사자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고 여론의 압박이 이어졌으며, 상생 협력법은 사업 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개

정되었다.

한편 상생 협력법은 사업 조정 제도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는 규정도 두고 있으며,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은 1차 협력사가 받은 납품 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 2:3차 협력사에 현금 결제 또는 상생 결제로 납품 대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상생 결제는 결제 일자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 매출 채권을 대기업과 공공 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한 제도인 바, 그동안 대기업과 1차 협력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상생 결제가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되어 중소기업의 현금 회수 보장, 부도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권리 의식이 필요하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을 자는 자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 상생 협력법은 제정

당시부터 제25조 제1항 1호부터 제3호에 걸쳐 납품 대금을 깎거나 지급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납품대금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행정 제재 및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그 행정 제재 및 형벌이 강화되었다.

'갑질 근절'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중소기업도 위 납품 대금에 대한 갑질에서 구제받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위 규정을 활발하게 활용하여 피해가 구제·예방되는 경우가 많아져 상생과 협력의 입법 취지가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도 상생 협력법 제27조에 따른 수탁·위탁 거래 실태 조사를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와 관련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및 사업자 단체 역시 중소기업벤처부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협력과 상생이 승수는 기업정조 조성되도록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기고

##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말바우시장으로 오세요

면 하루 이용인원이 3만 명을 넘어서는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시장 내 511개의 점포와 담양, 곡성, 장성, 화순, 순창 등 주변 시골에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생산품으로 장을 벌이노라면 '다른 시장엔 없어도 말바우시장에 오면 다 있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다. 말바우시장이라는 이름의 유래 역시 정겹다. 김덕령 장군의 말이 바위에 발굽을 힘차게 내디뎠는데, 말발굽 모양으로 발자국이 찍혀서 그 바위를 '말바우'라 불렀고, 그 주변에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름이 생겨났다는 설화가 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옛날 장터에 말처럼 큰 바위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 위에 걸터앉아 말 타는 시늉을 하며 놀았다고 해서 '말바우'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바위는 지금 남아 있지 않다.

생계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인 말바우 시장은 필자가 북구 부구청장 재임 시절인 2005년 5월 고객 중심의 시설 현대화

로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한다.

무등록 시장이었던 말바우시장이 재래시장으로 공식 인정되면서, 주민 편의 인프라 지원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의 모델이 된 것이다.

북구는 국회의원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관심으로 확보한 국비와 시비, 구비 등 18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1·2 주차장, 아케이드, 고객 쉼터, 만남의 광장 등을 조성했다. 올해엔 180억 원 규모의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구 공직자들과 함께 중앙 부처 방문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말바우시장의 변화를 위한 여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돼 '대한민국 대표 감성시장! 어매의 정(情)'을 콘셉트로 오는 2019년까지 사업비 17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으로 새로운 먹거리와 볼거리는 물론 즐길거리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

성화에 밑거름이 되는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시장으로 자리잡게 된다.

북구와 말바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단은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 4, 7일 3일에 걸쳐 '2018 말바우 GOGO 축제 가을페스티벌'을 시장 일원에서 연다.

10월 2일과 4일 양일간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고객 감사 이벤트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과 즉석 경품을 제공한다. 또 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7일에는 시장 상인들이 기부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반값 경매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행사로 발생한 수익금은 관내 사회 단체에 기부할 계획으로 고객들의 장 보기를 통한 '일상 속 기부'라는 아름다운 실천 또한 의미가 있겠다.

가족, 연인과 추억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원만한 가을, 전통·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곳, '말바우시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

'가는 날이 장날'이던 마음부터 풍요롭다. 아직도 어매(어머니의 전라도 방언)의 훈훈한 인심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고향 같은 곳,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은 장날이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로 넘쳐난다.

가격 흥정, 덤으로 받는 물품 몇 개에 미소가 오가는 시골 장터의 미덕을 고스란히 간직한 50년 역사의 말바우시장.

1960년대 말 인근 농민들의 직거래 장터로 자연스럽게 형성돼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번창했다. 매일 2, 4, 7, 9일 열두 번의 시골장 형태로 장이 서는 날이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후한서'에 '파충불고(破甕不顧)'라는 고사성어가 나오는데 사연은 이렇다. 어느 날 맹민이 시루를 지고 가다 그만 깨트렸던 모양이다. 그러나 맹민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갔다. 이를 본 관태라는 지역 유지가 연유를 물었다. "시루가 깨졌으면 돌아보는 게 인자상정일 텐데 왜 그냥 가는가?" 맹민이 답한다. "깨진 시루는 쓸모가 없는데 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태는 맹민의 비범함을 알아채고 학문에 정진할 것을 권유했다. 이후 맹민은 글공부에 매진해 마침내 삼공의 지위에 오른다.

'파충불고(破甕不顧)'란 '깨진 시루는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이니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이색적인 박람회 '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행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18 실패 박람회'가 그것이다. 실패를 공유하고 재기를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 박람회에서는 실패 문화 콘퍼런스, 실패 사례 공모전 등의 의미 있는 행사들이 진행됐다. 실패를 적용하고 해석해 보는 프로그램은 모두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실패왕'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발명의 아버지 에디슨은 필라멘트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해야 했다. 전설의 흥련왕 베이브 루스는 22시즌 동안 714개 홈런을 쳤지만 스트라이크 아웃 역시 가장 많이 당했다.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단산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고 학문을 집대성했다. 사실 누구도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에따라낙오자가되기도 하고 도약의 초가를 마련하기도 한다. 좌약의 실패나과 저출산 및 양극화로 대변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어쩌면 실패는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패의 다른 말은 실패와 패기일 것이다. 혹여 지금 넘어진 이들이 있다면 찰스 F. 키틀링의 말을 되새겨 보면 어떨까. "처음부터 잘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실패, 또 실패, 반복되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하면서 성공을 향해 나간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실패 박람회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정 치 부 220-0649 경 회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63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일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